

“해당화가 활짝 피었어요”... 강진 봄꽃축제 ‘손짓’

6~14일 군동면 남미특사 일원 반값 가족 여행으로 그린투어

강진군과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가 오는 6~14일 군동면 남미특사 일원에서 제1회 강진 서부해당화 봄꽃축제를 연다고 3일 밝혔다.

대한민국 최대 서부해당화 군락지인 남미특사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봄나들이 축제다.

강진군은 올해를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선포하고 봄철 수많은 남미특사 방문 관광객을 강진읍으로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지역 관광자원 홍보에 나선다.

이번 축제는 봄축제 특성상 중·장년과 커플이 주 타깃이다. 킬러콘텐츠인 꽃에 집중,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체류시간을 대폭 늘린다.

개장식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남미특사 주차장과 탐방로 일원에서 열리며 폐막공연은 14일 오후 4시 지역 가수와 지역민들이 함께 즐기는 것으로 마무리

한다. 관람객들에 관심을 끄는 것은 ‘강진 반값 가족여행’이다. 축제 기간 중 테마여행 정보를 제공해 참여를 이끌어 낸다.

테마가 있는 강진 반값여행으로 ‘강진 그린투어’는 남미특사 봄꽃, 강진을 세계모란공원, 가우도를, ‘강진 인물투어’는 정약용의 다산초당, 김영랑의 시문학 파기념관, 하멜의 병영 한글묵 돌담길, ‘강진 에코투어’는 백련사 동백숲, 주작산 자연휴양림, 가우도를, ‘K-컬처 투어’는 청자박물관 상설 물레체험, 한국 민화박물관, 무위사, 월남사지를 돌아본

다. 이번 축제가 끝나고 한달 뒤 1000만 그루의 철쭉이 다시 한 번 남미특사 일원을 뒤덮는다. 여기에 도암면 만덕산 백련사 동백과 강진을 세계모란공원 모란도 맑 것 자태를 뽐내 강진의 봄꽃 향연을 이어 간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꽃을 소재로 한 강진의 축제는 봄을 거쳐, 여름, 가을로 이어진다”며 “축제는 관광 관련 3차산업뿐 아니라 1차산업을 통한 지역민 소득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다산박물관, 지역작가 초대전

강진 다산박물관은 올해도 지역의 역량 있는 작가들과 신진 작가들을 선정해 12월까지 다채로운 전시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첫번째 전시를 맡은 김성우 작가는 현재 와보랑개박물관 관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남부국제 현대미술제, 남부현대미술협회 영호남 교류전, 광주전남현대대학회 전시 등 다양한 전시 교류를 펼쳐왔다.

이번 개인전은 ‘그림이 된 사투리’라는 주제로 작품 17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평소 우리 한글의 형태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고찰을 통해, 너무나도 아름다운 글자임을 깨달아 작품에 옮기게 됐다.

김 작가는 한글의 형태를 조형화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전남에서 사용하는 사투리가 점점 사라지기 전에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하나 작품을 만들었다.

다산박물관은 2024년 지역작가 초대전을 통해 작가의 의미 있는 작품들을 지역민들과 함께 향유 하고자 전시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열리고 박물관 1층 다산갤러리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국훈 다산박물관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 지역작가 초대전도 더 친근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유기농 아스파라거스 수확 한창 해남군

해남군 산이면 상공리의 아스파라거스 농장. 추운 겨울을 이겨낸 장한 아스파라거스를 거둬들이는 농부의 손길도 덩달아 바빠진다.

3일 해남군에 따르면 전량 유기농으로 재배되는 아스파라거스는 일반적으로 재배되는 아스파라거스에 비해 수확량은 적지만 식감이 단단하고, 향이 강하다. 아스파라거스는 3월 중순 수확을 시작해 석달 정도 출하된다.

아스파라거스는 다년생 식물로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가 탁월하고, 심장건강과 골다공증 예방, 혈당과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다.

유기농 아스파라거스는 직거래 및 해남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해남미소(www.hnmiso.com)를 통해 판매된다.

해남=전연수 기자



해남군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되는 아스파라거스 수확이 한창이다.

해남군 제공

기상·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 강진군, 농장별 작물 정보 제공

강진군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농장별 ‘기상·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를 농가에 시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는 개인 휴대폰으로 지형적 특성과 함께 현장 기상 정보를 반영한 날씨, 그리고 재해정보 등의 문자를 전송해주는 것으로 일일 기상 정보와 작물별 주간 농사 정보 등이 제공된다. 영농활동이 위험하거나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태풍과 폭염, 한파, 폭우 등의 기상 상황이 예상될 때도 이에 맞는 행동 요령 등을 보내 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신청 농가는 향후, 농장 상황에 맞는 날씨 현황과 재해정보, 재해위험 발생 관리대책 알람 등을 휴대폰(문자)와 인터넷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기상·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읍·면단위의 기상청 동네예보(5km×5km) 보다 훨씬 더 상세화(30m×30m)된 ‘농장 단위’의 기후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인데, 농장의 고도, 지형, 지표면의 피복 상태 등에 맞춘 상세한 기상 정보를 제공한다.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기상 정보 11종과 기상재해 15종에 대한 예측 정보와 대응 지침·정보를 제공하며 기상·재해 정보는 최대 9일, 그 밖의 정보는 3일까지 알려준다.

서비스 신청은 농업기상재해 조기 경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내려받아 필지 주소, 재배 작목, 인적 사항 등을 적어 농업인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 작물연구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무료이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 귀향청년 가구 신규 보급자리 제공

강진군은 최근 마흔세번째 사랑의 집짓기를 완공해 취약계층 청년가구가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새 보급자리 입주식을 지난 1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입주식에는 서순철 강진 부군수, 운영남 강진군군원을 비롯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국 사무처장, 강진탐진로타리클럽 정원장 회장 및 회원들, 마을주민 등이 참석했다.

입주자는 8년 전 귀향해 건축일을 하며 노모와 함께 살 집을 기초공사를 하던 중 노모까지 사망해 희망을 잃고 임시 거처인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군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거복지 매칭그랜트지원사업 및 탐진로타리후원금 등을 연계해 강진군 사랑의 집짓기를 진행했다.



강진군이 최근 마흔세번째 집짓기를 완공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2000만원, 강진탐진로타리클럽 1000만원, 동광전업 지정기탁금 500만원에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3500만원을 매칭해 총 7000만원의 사업비로 강진읍에 23평 규모 주택을 신축했다.

서순철 강진 부군수는 “43번째 사랑의

집이 준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강진탐진로타리클럽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린다”며 “사랑의 집짓기 사업 등으로 취약계층 주거 안정 도모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전남도, 현장중심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전남도가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확대 등 현장 중심의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2022년보다 2단계 하락한 4등급을 받은 점을 감안해 올해 청렴도 2등급 달성을 목표로 취약점 개선에 중점을 두고,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반부패·청렴 추진 체계 고도화, 부패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통한 고객만족 강화, 부패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청렴문화 확산과 대외협력 강화 등 4대

전략, 45개 세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취약 분야인 외부제감도 향상을 위해 도민에게 더 다가가고, 제감하는 현장시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감사관실 직원이 부패 위험이 있는 공사·용역과 보조금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찾아가는 청렴컨설팅’을 확대하고 외부민원인에게 업무처리 중 불편사항과 부패행위 신고 방법 안내 등 ‘청렴 해피콜’과 ‘청렴지킴이 문자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외부청렴도 관련 부서를 감사관과 청

렴지원관이 직접 찾아 직원 애로사항을 듣고 함께 고민하는 ‘찾아가는 청렴정담회’도 열고 부패 취약 분야인 대규모 공사와 보조금 분야 위주로 특별 직무감찰을 확대키로 했다.

위반 시 최고 징계와 관리자·업체 연대책임을 적용키로 했다.

김세국 도감사관은 “도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 중심 시책과 내부 소통·공감으로 실효성 있는 청렴도 대책을 적극 추진해 올해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재도약하고, 공직 전반에 청렴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신안군, 갯벌 보전 국제교류 탐사르습지 관계자 사전 답사

신안군은 세계자연유산인 신안 갯벌의 지속적인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일본 아리아케 관련 지자체(가시마시, 사가시, 아라오시)·탐사르습지센터와 국제 교류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신안 갯벌은 국제적 보호종인 다양한 도요·물떼새를 비롯한 해양성 조류의 중간 기착지로 지난 2021년 1100km²에 이르는 광활한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이동성 물새의 국제적 서식지로 인정받아 동아시아-대양주 이동 경로 서식지(EAAFP), 생물권보전지역이자, 갯벌도립공원 등 다중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신안 갯벌과 일본 아리아케 갯벌은 다양한 멸종위기 조류 서식 등 생태계의 유사하고 어패류 양식 등 지역민의 생활 터전이자 보전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등 상호 공유할 공통 주제가 많다.

지난 1일 신안군을 방문한 일본 탐사르습지센터 사무국장님과 일행은 신안 갯벌을 둘러보고 세계유산에 등재되기까지 신안군의 15년간 노력과 비결, 군민들의 지원 등 여러 가지 성과 등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오는 5월 일본 습지보호지역을 관리하는 3개 지자체 관계자가 신안군을 방문해 갯벌 보전을 위한 국제 교류 워크숍을 추진하는데 상호 협의했다. 신안=홍일갑 기자